

# 석유, 100년의 발자취

- 스님이 가져 온 최초의 석유 -



전 영 선

〈 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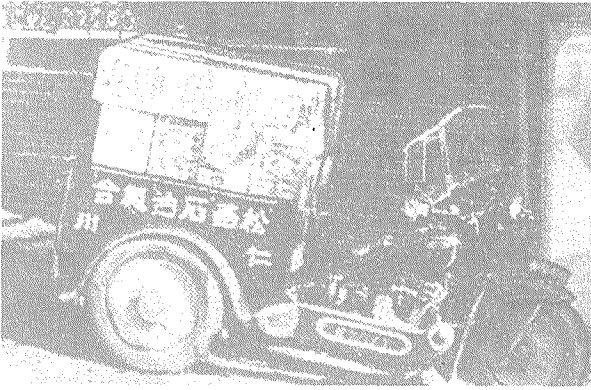
20세기의 검은 보석이라는 석유, 1859년 미국의 펜실바니아주 티튜빌 계곡에서 에드윈 드레이크라는 군인이 처음으로 원유를 채유하면서 20세기의 산업과 교통을 엄청나게 발달시켰다. 특히 현재의 자동차는 석유가 없으면 쓸모 없는 고철덩이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석유는 언제 어떻게 이땅에 나타났는가. 석유가 처음으로 이땅에 등장한 것은 자동차가 나타나기 훨씬 전이었다.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는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1905년 이후부터 수입되었으나 이보다 먼저 상륙한 것이 옛날의 우리 조상들이 석유라 불렀던 등유였다.

고종 13년인 1876년 폐쇄됐던 우리나라는 자의 반타의 반으로 일본과 조선의 3개 항구 개방, 우호조약, 사신 교환등 12개조약을 내용으로 하는 병자수호조약을 맺으면서 개화가 시작됐다. 그후 고종 17년인 1880년 9월 고종은 병자수호조약에 따라 처음으로 사신들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인 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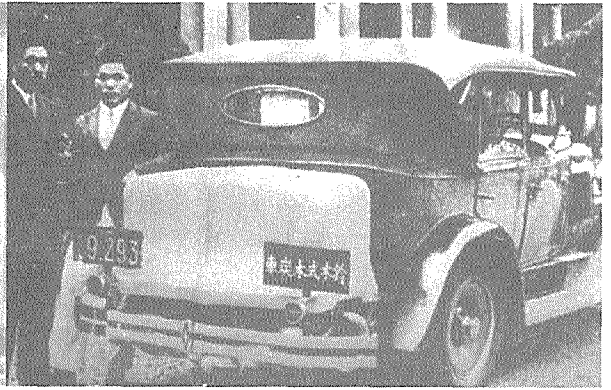
문물을 견학하도록 어명을 내렸다. 이때 수호사절단 중에는 이동인이라는 승려 한 사람이 끼어 있었다.

이동인은 서울 봉원사(현 연세대의대 근방)승려로서 일찍이 일본어를 배운 후 자주 밀항하여 일본의 개화파 정객들과 친분을 맺는 한편 국내 개화파의 거두였던 김홍집, 김옥균, 박영효등과 손을 잡고 개화에 앞장섰던 소장파 개화정치인이자 승려였다. 수호사절의 한 사람으로 일본에 건너갔던 이동인은 동경을 돌아다니며 서양문물을 견학하다가 석유와 석유램프, 성냥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귀국할 때 이것들을 구입해 온 것이 이 땅에 석유가 처음 들어오게 된 연유였다.

2년 후인 1882년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한미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짐에 따라 들어오기 시작했던 서양관리, 기술자, 무역상인, 선교사들이 석유를 가지고 와 등화와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석유의 편리함을 알게됐다. 조선땅에서 석유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



▲ 1920년대초, 인천의 '솔표' 석유와 휘발유 배달 3륜트럭



▲ 세계2차대전중 국내에서 사용했던 목탄택시

를 놓칠리 없는 약삭빠른 일본인과 중국인 보부상들이 석유를 조금씩 들여와 주로 대도시 상류가정에서 등화용으로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하여 우리 고유의 아주까리나 송진, 목화씨 기름 등잔이 석유등잔으로 서서히 바뀌었다. 이때까지는 불법으로 도입됐으나 1884년 한미간에 통상조약이 체결되자 미국으로부터 미국무역상들이 석유를 정식으로 도입,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초기의 서양 교역물 중에서 석유는 최고의 거래품으로 꼽힐 만큼 국내소비는 날로 늘어갔다. 세계 열강들이 앞다투어 우리나라에 상륙할 즈음인 1897년, 서울에 주재하던 미국 공사인 호레이스 알랜이 고종으로부터 조선내의 이권을 무더기로 따낼 때 당시 미국의 최대 석유회사였던 스탠더드오일이 알랜을 통해 인천 월미도에 석유저장소 건립허가를 받아 그 해 12월에 조선 최초로 거대한 석유저장탱크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어 큰 구경거리가 됐다. 게다가 월미도 석유탱크 앞에 접안시설까지 갖추고 거대한 유조선이 들어오자 한동안 인천의 '수봉산만한 서양기름통'과 '서양 기름선'을 구경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지방으로부터 인파가 끊일 날이 없었다.

곧 이어 스탠더드오일은 조선내 총판대리점을 당시 인천에 '순신창'이란 가게를 열고 국제무역을 하던

미국인 타운센트에게 주어 「솔표석유」라는 조선이름으로 팔았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동이 트기도 전에 양철통을 짊어진 보부상들과 당나귀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서로 먼저 사가려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심할 때는 순경까지 동원하여 회초리로 난장판을 정리할 정도였다. 이 석유 때문에 타운센트는 떼돈을 벌며 인천에 도정공장까지 가진 서양계별로 군림했다. 이렇게 스탠더드오일은 1920년까지 조선내 시장을 독점하다가 뒤이어 미국의 텍사코와 영국의 셸오일이 상륙하여 피나는 경쟁을 벌였다. 셸오일은 「조개표 석유」라는 이름으로 「솔표」와 함께 개화문명의 등불이 됐다.

석유가 등장하면서 갖가지 웃지 못할 관습이 생겼다. 시골에서는 장날만 되면 우선 구매품목이 석유였다. 1905년 쌀 한말에 50전~80전하던 시절 한 되들이 석유 한 통에 10전 전후를 주어야 살 수 있으리 만치 꽤나 비싼 서양기름이었고 시골마을마다 밤에 석유등잔을 켜면 잘사는 집으로 알았다. 이 석유 값은 그 후 계속 올라가 1918년에는 쌀 한말에 4원할 때 석유 한 되 값은 50전이였다. 석유는 약으로도 둔갑했었다. 회충에는 석유가 명약이라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 아이들이 아무것이나 먹고 배아프다며 뒹굴면 석유를 한 손갈씩 먹이던 년센스 풍습도 생겼다.

자동차용 연료인 휘발유가 등장한 것은 1908년경부터였다. 이때 외국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자동차가 서울에 한 두 대씩 나타나자 역시 스탠더드오일이 정식으로 휘발유를 도입해 순신창을 통해 팔았다. 자동차 영업이 본격적으로 꽃피던 1910년대 말의 휘발유 값은 얼마였던가. 당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동차가 1km 달리는데 드는 연료비는 20전이었다. 이때의 자동차는 휘발유 1리터로 4~5km밖에 갈 수 없었다. 따라서 휘발유 1리터를 사려면 80전 내지 1원을 주어야 살 수 있었는데 쌀 한 말에 4원할 때 였으니 꽤나 비쌌다.

1925년경부터 농촌에 보급되기 시작한 발동기는 주로 등유를, 역시 같은 시기에 등장한 연안 발동선에도 연료로 등유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자동차 연료인 경유가 도입된 것은 1926년이었다. 서울과 온양온천간에 디젤엔진기동차가 등장하면서 교통기관으로서 처음으로 경유를 사용했다. 1935년경 일본의 암마기에서 만든 디젤 발동기를 도입하면서 휘발유보다 값이 싼 경유가 제2의 동력에너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광복이전에는 휘발유는 등유보다 가격이 비싸서 주로 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했다. 이렇듯 순조롭게 보급되던 휘발유는 1930년대 후반을 들어서면서 수난을 맞았다.

일본이 1931년부터 중국대륙을 침범하기 위해 만주사변, 상해사변, 이어 중국사변을 일으키면서 2차 세계대전을 위한 전쟁 준비에 열을 올렸다. 1차 대전 때부터 속전속결을 위한 자동차의 필요성을 절감한 일본은 휘발유의 확보가 급선무여서 1938년 7월부터 휘발유 배급제를 실시했다. 39년 들어 2차 대전 준비에 광분한 일제가 병아리 오줌만큼 주던 배급마저 극도로 축소해 버리자 경찰의 눈을 피해 휘발유 암매상들이 활개를 쳤다. 석유상륙 초기에는 금값과 맞먹던 것이 그동안 차량의 증가와 산업용 동력 에너지로 수요

가 늘었으나 오히려 값이 떨어졌다. 그러나 일제의 물자 배급통제로 39년에는 공정가격 1리터당 2전 6리가 5전으로 폭등, 암거래해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

2차 대전이 터진 40년 들어 휘발유 비축에 혈안이 된 일제는 배급마저 중단해버려 대용으로 등장한 것이 카바이트를 이용한 아세틸렌 자동차였다. 그러나 그것마저 군용으로 몰수해버려 급기야는 숯불 자동차가 등장했다. 버스나 트럭은 물론 택시까지 목탄을 피우는 드럼통을 달아 숯을 피워 얻은 가스로 움직였으나 힘과 속도는 휘발유차의 절반도 못 따라갔다. 휘발유 고갈로 국내 자동차는 운행 단축 아니면 정지로 자동차회사들은 통폐합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목탄 자동차 시대는 45년 해방 때까지 겨우 연명했다. 아침마다 자동차에 숯불 피우기가 귀찮아 북부의 어느 운전사들은 옥수수나 수수로 만든 중국 술 빼갈주를 연료로 사용하다가 자동차를 홀랑 태워먹는 해프닝도 연출했다.

해방과 더불어 일제가 군용으로 비축했던 휘발유가 쏟아져 나오고 미군이 이땅에 진주하면서 가져다 준 엄청난 경제물량으로 휘발유 고갈에서 해방됐다.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자동차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6·25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62년이었다. 경운기 메이커였던 진주의 대동공업과 시발자동차에서 만든 소형 디젤엔진을 얹은 픽업트럭이 최초였다. 전량 도입에 의존하는 석유는 외환의 낭비를 막기위한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에 따라 65년부터 중형차 이상 디젤화로 지금까지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 70년대 두 차례나 겪은 석유과동으로 또한번 흑독한 에너지를 당해 석유의 귀중함을 체험하기도 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액화 석유가스인 LPG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86년 새한과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 시판한 택시였다. 이렇게 한국의 석유 120년사는 파란만장의 길을 걸어왔다. 🍷